

王筠의 古今字 이론 연구

- 分別文과 累增字를 위주로

오 제 중
(건국대학교)

1. 緒 論

王筠은 『說文解字』¹⁾를 연구한 清代의 저명한 연구자로서 段玉裁, 朱駿聲, 桂馥 등과 함께 소위 說文四大家라고 불리며 說文學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의 대표적인 연구서로는 『說文釋例』와 『說文句讀』 등이 있으며 지금까지도 『說文』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중 『說文釋例』에서 다루고 있는 分別文과 累增字를 비롯한 異部重文 등의 문자학 이론은 古今字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古今字는 일찍이 漢代의 훈고학자들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일반적인 내용은 문헌 기록상으로는 동일한 어휘 항목의 낱말 이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서로 다른 문자 부호로 표기되는 소위 ‘同詞異字’ 현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문자가 새롭게 造字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는 소위 ‘造字相承’의 관계로 여기기도 한다.²⁾ 그러나 과거 학자들의 주장하는 古

1) 이하 모두 『說文』으로 줄여 적는다.

2) 裘錫圭 『文字學概要』, 259쪽. 「近代講文字學的人, 有時從說明文字孳乳情況的角度來使用“古今字”這個名稱, 把它主要用來稱呼母字跟分化字. 近年來, 還有人明確主張把“古今字”這個名稱專用來指有“造字相承的關係”的字. 他們所說的古今

今字의 개념과 근래 학자들이 표방하는 造字 과정 개념의 古今字는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漢代의 鄭衆, 鄭玄 등으로부터 清代의 段玉裁와 王筠에 이르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古今字는 어휘와 문자의 관계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通時的 관점으로 풀어내는 일종의 훈고학 용어로서 문헌상의 ‘同詞異字’ 현상에 가까운 개념이다. 따라서 새로운 글자가 파생되어 만들어지는 ‘造字相承’의 현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王筠은 『說文釋例』에서 한자의 重文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偏旁이 첨가되거나 문자의 繁化가 발생하는 分別文과 累增字 현상을 처음으로 발견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古今字의 개념을 설명했다. 分別文과 累增字는 이미 本字의 의미가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偏旁이 첨가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특히 分別文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이것은 古今字와 동일한 개념으로 단지 명칭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王筠이 가지고 있던 문자학 개념을 바탕으로 古今字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것과 分別文 및 累增字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王筠은 일종의 異體字인 重文에 대해서도 다른 部首에 속해있는 소위 異部重文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重文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도 分別文 및 累增字를 포함한 古今字에 대한 사고를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크게 두 가지 영역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려고 한다. 먼저 王筠의 重文 이론인 異部重文의 예를 통해 分別文 및 累增字와의 관계를 살펴도 록 한다. 다음으로는 王筠이 제시한 分別文과 累增字의 실제 字例를 통해 그의 古今字 이론을 검증한다. 이와 같이 王筠의 分別文과 累增字를 포함한 古今字 이론을 통해 자형의 繁化 현상을 분석하고 아울러 문자의 派生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주요한 연구 목적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清代의 수준 높은 說文學 성취도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계기

字, 跟古人所說的古今字, 不但範圍有大小的不同, 而且基本概念也是不一致的。」(근대 문자학 연구자들은 때로 문자 파생 현상을 설명하는 시각에서 ‘고금자’라는 용어를 써서 이것을 주로 원글자와 분화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또한 최근의 일부 학자들은 ‘고금자’를 ‘조자 계승 관계’의 문자를 지칭하는 거라 명확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고금자와 옛사람들이 말하는 고금자는 비단 범위의 크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기본 개념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II. 王筠의 重文의 개념

1. 異部重文의 정의

王筠은 『說文』에 수록된 重文 중 或體와 俗體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피력하였다. 구체적으로 異部重文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이를 통해 王筠의 重文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或體는 許慎이 고대 典籍 등의 자료 가운데 자형이 같지 않은 것을 선별한 것으로 보편적으로 필획이 비교적 간단한 자형으로 秦始皇의 문자통일 정책에 의한 규범화를 거치지 않은 일종의 小篆에 대한 異體이다. 따라서 일부 或體는 시대에 따른 자형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주류를 이루는 것은 같은 시기 동일한 문자에서 발생한 異體字를 지칭한다.³⁾

說文之有或體也, 亦謂一字殊形而已, 非分正俗於其間也. 自大徐本所謂或作某者, 小徐間謂之俗作某, 於是好古者概視或體爲俗字.⁴⁾ (『설문』의 或體는 한 글자의 서로 다른 자형일 뿐이며 그것 사이에는 정체와 속체의 구분이 없다. 대서본에 ‘或作某’라 하고 소서본에서는 ‘俗作某’라고 하였기에 대개 옛것을 좋아하는 이들이 或體를 속자로 여긴 것이다.)

王筠의 판단으로 或體는 동일한 글자의 서로 다른 자형으로 正體와 俗體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또한 或體는 규범화되지 않은 俗字와도 구별된다. 이처럼 王筠이 或體에 대해 正字와 或體는 異體의 관계일 뿐 雅俗의 구분이 없다는 관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으로 俗體는 민간에서 유행하던 일종의 通俗字로서 王筠은 俗體를 저속한 문자로 여겨 이것의 불필요성을 논하기도 했다.

3) 吳濟仲 「『說文解字』重文의 內容 및 字例 研究 - 或體와 俗體의 字例 분석을 위주로», 455쪽.

4) 王筠 『說文釋例』, 卷五, 三十四~三十五, 「或體」.

然許君收之，果何意乎。將謂使人用之，則有正字可用矣。將謂辯僞存眞，則既有所收之正字，卽不收者爲俗字矣。漢人著書體例皆然。……許君於禮經之古今文，尙且有所去取，況此無稽之俗字乎。⁵⁾ (그렇다면 허신이 이것을 수록한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 위함이라면 정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진위를 가려내기 위함이라면 이미 수록한 정자가 있으므로 속자를 수록하지 않아도 된다. 현대 사람들의 자서 편찬 체례는 모두 이와 같다. ……허신은 예기와 같은 경전의 고금문에서 문자를 취했으니 어찌 이런 터무니없는 속자이겠는가.)

이것은 或體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관점으로 역대 학자들이 俗字에 대해 저속한 문자로 여긴 것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王筠이 생각하는 或體는 같은 시기에 共時的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異體字의 개념으로, 서로 다른 시기 通時的으로 사용되는 ‘同詞異字’의 古今字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許慎이 ‘古今文中서 취한 것은 결코 俗字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王筠은 古今字와는 다르게 俗字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王筠의 판단으로는 重文의 일종인 或體와 俗體 모두 古今字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王筠이 제시한 새로운 重文의 개념인 異部重文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說文者，主於分別之書也。漢碑之存於今者，皆出東漢，其體雅俗雜陳，半不合於六書，當群言淆亂之時，許君發憤有作，又恐竹帛謄謄，易滋魚豕⁶⁾。故卽同音同義之字，不盡使之類聚，其類聚者有三種，一爲無部可入之字。……一爲偏旁相同之字。……一爲聲意不合之字。⁷⁾ (『설문』은 자형 분류가 주목적인 자서이다. 현대 비문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모두 동한 때의 것으로 그 자형에는 아속이 섞여있어 절반은 육서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처럼 많은 말들이 어지럽게 뒤섞일 때 허신은 발본하여 자서를 만들었으며 죽간과 백서의 것을 옮겨 적을 때 잘못 쓰는 것이 쉽게 생기

5) 王筠『說文釋例』，卷五，三十九~四十，「俗體」.

6) 魯魚亥豕. 글자 모양이 서로 비슷해 잘못 쓰는 오류를 범하기 쉬움을 이르는 말.

7) 王筠『說文釋例』，卷六，一.

는 것을 염려하였다. 따라서 같은 자음과 자의의 글자이지만 이를 하나로 모을 수 없었으며 모을 수 있는 것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어느 한 부수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것, ……둘째는 편방이 서로 같은 것, ……셋째는 聲符와 意符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王筠은 『說文』에서 許慎이 重文이라고 명확하게 밝힌 것은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어느 한 部首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것, 둘째는 편방이 서로 같은 것, 셋째는 聲符와 意符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許慎이 重文으로 판단한 것 이외에 王筠의 생각으로는 『說文』에는 同音同義의 重文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部首에 흩어져 있는 異部重文⁸⁾과 또한 비록 같은 部首에 있어도 重文으로 표기하지 않은 同部重文⁹⁾이 있다고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 중 同部重文은 許慎이 명확하게 重文이라고 표기한 것 이외에 같은 部首 아래에서 비록 重文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重文에 속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 중 王筠이 제시한 異部重文의 예를 살펴보면 『說文釋例』에서 「攢與彡部遺同」¹⁰⁾ (攢과 彡부의 遺은 서로 같다)라고 하였다. 『說文』 「攢, 習也. 从手, 貫聲.」¹¹⁾ (攢은 습관이다. 뜻 부분인 手와 소리 부분인 貫으로 이루어져 있다.) 『說文』 「遺, 習也. 从彡, 貫聲.」¹²⁾ (遺은 습관이다. 뜻 부분인 彡과 소리 부분인 貫으로 이루어져 있다.) 段玉裁는 이 중 攢에 다음과 같은 注를 달았다. 「此與彡部遺音義皆同, 古多段貫爲之.」(이것은 彡부의 遺과 자음과 자의가 모두 같다. 고대에는 대부분 貫을 빌려 이를 대신했다.)라고 하였다. 『說文』에는 慣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로 보아 과거에는 貫으로 지금의 習慣의 뜻을 대신했으며¹³⁾ 攢이나 遺은 이것의 異體字이다. 따라서 王筠은 攢과 遺을 字音과 字義가 일치하지만 部首가 서로 다른 異部重文의 字例로 여긴

8) 王筠 『說文釋例』, 卷七, 「異部重文」.

9) 王筠 『說文釋例』, 卷六, 「同部重文」.

10) 王筠 『說文釋例』, 卷七, 二十三.

11) 許慎 『說文』, 卷十二, 上.

12) 許慎 『說文』, 卷二, 下.

13) 貫에 대해 「習慣, 後作慣.」(습관이다. 후에 慣이 되었다.)이라고 하였다. 『漢語大字典』卷六, 3629쪽.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異部重文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저 古文字 영역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두 글자의 形符의 의미가 유사하다면 이를 서로 통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비록 形符가 바뀌어도 本義는 변하지 않는다.¹⁴⁾ 이 밖에도 唐蘭과 같은 학자는 의미가 서로 유사한 글자는 그 偏旁을 서로 通轉¹⁵⁾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이러한 관점 역시 王筠의 異部重文이 성립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한다. 결국 과거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同音同義의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部首로 모을 수 없는 異部重文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王筠은 이러한 현상을 주목하여 지적한 것이다.

2. 分別文 및 累增字와의 관계

重文에 대한 王筠의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重文과 문자의 派生 과정으로 인해 탄생한 分別文 또는 累增字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王筠은 許慎의 重文에 대해 「許君所目重文中, 亦有一字遞加者.」¹⁶⁾ (허신이 정한 중문 항목 중에는 한 글자에서 편방이 더해진 것이 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王筠이 언급한 ‘一字遞加’는 문자의 자형 구조가 복잡해지는 繁化¹⁷⁾

14) 高明 『中國古文字學通論』, 146쪽. 「在古體形聲字中, 如果兩種形旁意義相近, 即可互相代用, 並不因更換形旁而改變本字的意義.」(고문자의 형성자 가운데 만일 두 종류의 형부의 의미가 유사하다면 서로 대용할 수 있으며 형부가 바뀌어도 본래 글자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15) 唐蘭 『古文字學導論』, 231쪽. 「通轉和演變是不同的, 演變是由時代不同而變化. ……至於通轉, 却不是時間的關係, 在文字的型式沒有十分固定以前, 同時的文字, 會有好多樣寫法, 既非特別摹古, 也不是有意創造新體, 只是有許多通用的寫法, 是當時人所公認的.」(통전과 연변은 서로 다른 것으로, 연변은 시대가 갈지 않아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전은 시간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다. 문자의 형식이 심분 고정되기 이전 같은 시기의 문자에는 다양한 서사 방법이 있었다. 이것은 특별히 고문자를 따라 그린 것도 아니고 또한 일부러 새로운 문자체를 만든 것도 아니다. 단지 많은 통용되는 서사 방법이 있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공인된 것이다.) 즉 演變과 通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通時的으로 자형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반면 후자는 동일한 시대에 발생하는 자형의 차이이다.

16) 王筠 『說文釋例』, 卷八, 十七.

17)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모든 重文이 正篆인 小篆에 비해 자형이 복잡한 繁化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重文은 小篆에 비해 자형이 더욱 간결해지는 簡化

를 의미하는 것이다. 分別文과 累增字 역시 本字에 편방이 더해지며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重文의 개념과 일정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分別文과 累增字는 重文과의 차이점 또한 발견된다. 이에 관해 王筠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然則許君所目爲重文者，據當時仍合爲一也。所不目爲重文者，據當時已分爲二也。¹⁸⁾ (따라서 허신이 중문 항목으로 정한 것은 당시 여전히 한 글자로 합쳐지는 것이고, 중문 항목으로 세우지 아니한 것은 당시 이미 두 개의 문자로 분리된 것이다.)

이밖에도 王筠이 생각하는 分別文과 重文의 차이는 또 있다.

案一部僅數字，而音義皆相近者，大抵盡是分別文。……夫此十部者，其所轄之字，皆與部首音義相近，許君集爲同部，而不言其爲一字，蓋卽以分別文告來世也。孳育浸多之後，其音義豪無異者，始命爲重文。……此三字者，各適其用，不復相通，而反古復始，祇句一字。¹⁹⁾ (하나의 부수에 들어 있는 여러 개의 글자에서 발음과 의미가 서로 유사한 것은 대개 모두 분별문이다. ……무릇 이처럼 열 개의 부수로 나누어지는 글자는 모두 그 부수와 발음과 의미가 서로 유사하여 허신은 이를 같은 부수에 모았지만 이것을 같은 글자라 하지 않고 대개 분별문이라고 세상에 알렸다. 이후 문자가 더욱 과생된 이후 그 발음과 의미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을 중문이라 명하기 시작했다. ……(拘, 筍, 鉤) 이러한 세 개의 글자는 각기 적절히 쓰이는 바가 있어 더 이상 서로 통하지 아니하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단지 句 한 글자일 따름이다.)

『說文』에는 부수자인 句가 수록되어 있으며 許慎은 이를 「曲也」²⁰⁾(굽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吳濟仲 「『說文解字』重文의 內容 및 字例 研究 - 或體와 俗體의 字例 분석을 위주로」) 따라서 여기서 王筠이 ‘一字遞加’라고 판단한 것은 繁化 현상이 발생한 重文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8) 王筠 『說文釋例』, 卷八, 十九.

19) 王筠 『說文釋例』, 卷八, 十九~二十一.

20) 許慎 『說文』, 卷三, 上.

다)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같은 部首인 句를 공유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글자가 수록되어 있다. 拘는 「止也」(제지하다), 筍은 「曲竹捕魚筍也」(대나무를 구부려 만든 물고기를 잡는 통발), 鉤는 「曲也」(굽다)라고 하였다. 결국 拘, 筍, 鉤는 本字인 句에서 편방이 더해져 의미가 변화한 分別文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래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本字인 句가 가지고 있는 ‘굽다’의 뜻은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拘, 筍, 鉤 등의 分別文의 개념은 역시 重文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王筠이 제시한 이와 같은 관점은 重文과 分別文 및 累增字를 구별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重文은 異體字의 성격이 강해 字音과 字義가 동일하므로 하나의 글자로 합쳐지는 것이 가능하지만 分別文 및 累增字는 때로 이미 의미가 변화하여 별개의 글자로 파생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重文 그리고 分別文과 累增字의 공통점은 바로 一字遞加的 繁化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반면 이들의 차이점은 重文과 같이 字音과 字義가 완전히 동일한 異體字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分別文과 같이 이미 다른 字形으로 字義가 분리되어 독립되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결론적으로 重文과 分別文 또는 累增字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를 동일한 내용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Ⅲ. 王筠의 古今字 이론

1. 分別文과 累增字의 정의

王筠은 『說文釋例』에서 分別文과 累增字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한 것과 달리 古今字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장으로 엮어 기술하지 않았다. 다만 分別文과 累增字 등을 설명하는 일부 문자 해설 가운데 古今字와 관련된 그의 이론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王筠의 古今字 이론을 밝히기 위해 『說文』 重文을 설명하는 과정에서²¹⁾ 제시한 分別文과 累增字의 정의와 字例에 대

21) 王筠은 『說文釋例』卷八에서 分別文과 累增字를 별도로 엮어 설명하였으며 그 시작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此亦異部重文, 以其由一字遞增也, 別輯之。」(이것

해 살펴보기로 한다.

字有不須偏旁而義已足者, 則其偏旁爲後人遞加也. 其加偏旁而義遂異者, 是爲分別文, 其種有二. 一則正義爲借義所奪, 因加偏旁以別之者也. 一則本字義多, 既加偏旁, 則祇分其一義也. 其加偏旁而義仍不異者, 是謂累增字, 其種有三. 一則古義深曲, 加偏旁以表之者也, 一則既加偏旁, 卽置古文不用者也, 一則既加偏旁而世仍不用, 所行用者反是古文也. 凡類此者, 許君說解, 必殊別其文.²²⁾ (편방이 더해지지 않아도 의미가 이미 충분한 문자에서 그 편방은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 더해진 것이다. 이처럼 편방이 더해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분별문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본의가 가차의에 빼앗겨 편방을 더해 그것과 구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원글자의 의미가 여럿이라 편방을 더해 그 중 하나의 의미만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편방을 더했으나 여전히 의미가 변화하지 않는 것을 누증자라고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고대의 본의가 심히 왜곡되어서 편방을 더해 드러나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미 편방이 더해져 고문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이미 편방이 더해졌지만 여전히 사용되지 않아 통용되는 것은 도리어 고문인 것이다. 허신은 이러한 것을 풀이할 때 반드시 그 문자를 분리하였다.)

이처럼 分別文과 累增字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偏旁이 더해진 이후 字義의 변화 여부에 있다. 또한 이러한 것을 許慎은 『說文』에서 ‘必殊別其文’, 즉 다른 문자인 重文으로 분리했다는 내용을 통해 王筠이 分別文과 累增字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은 重文과 밀접한 관련 내지는 그로부터 직

또한 부수가 다른 ‘이부중문’으로 하나의 문자에서 차례로 편방이 더해진 것을 별도로 엮었다.) 이를 통해 王筠은 分別文과 累增字를 異部重文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원래의 글자에서 새롭게 편방이 추가되는 것이 이들 分別文과 累增字의 전형적인 특징이므로 이것을 따로 떼어내어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重文 가운데는 편방이 오히려 줄어드는 簡化의 예도 존재하므로 편방이 더해지는 分別文과 累增字를 같이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2) 王筠 『說文釋例』, 卷八, 一.

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王筠의 重文의 관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分別文과 累增字를 일종의 異部重文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重文은 字音과 字義가 동일하므로 하나의 글자로 합쳐지는 것이 가능한 반면 分別文 및 累增字는 의미가 변화하여 별개의 글자로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비록 동일한 범주에 있지만 개별적인 속성은 여전히 차이가 있다.

1) 分別文

고문자인 甲骨文에서는 한 글자로 여러 낱말을 나타내는 ‘一字多詞’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²³⁾ 이것은 당시 어휘를 포함한 언어의 발전 속도를 문자의 생성 속도가 따라잡지 못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연관되어 한 글자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는 一字多義²⁴⁾는 漢字의 表意 기능에 부담이 되어 때로는 원활한 의사 전달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편방을 더해 낱말의 뜻을 분리하여 전달시키는 방식을 취했으며 이것이 바로 문자의 分化 현상이다.²⁵⁾ 王筠은 이러한 分別文의 작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古蓋無位字，故用立，及已有位字，卽不復用立字，使人觀名知義，不須推求也。今人舍專字而用古人通用之字，以是爲博，以是爲雅，直命爲感焉可也。²⁶⁾ (고대에는 位자가 없어서 立자를 사용하였지만 位자가 생기고 나

23) 최영애 『중국어란 무엇인가』, 136쪽. 갑골문에서는 오른손을 나타내는 𠂔가 오른쪽 右, 도울 祐, 제사명 侑, 있을 有, 또 又 등으로 사용되었다.

24) 예를 들어 甲骨文 𠂔은 반달의 모습을 그려 月(달 월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달이 뜬 시간대인 夕(저녁 석) 또한 뜻하게 되었다. 이처럼 古文字 단계에서는 하나의 글자가 여러 의미를 가지는 一字多義 현상이 비교적 빈번히 발생한다.

25) 裘錫圭 『文字學概要』, 214쪽. 「分散多義字職務的主要方法，是把一個字分化成兩個或幾個字，使原來由一個字承擔的職務，由兩個或幾個字來分擔。我們把用來分擔職務的新造字稱爲分化字，把分化字所從出的字稱爲母字。」(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의자의 직무를 분산시키는 주요한 방법은 하나의 글자를 둘 또는 몇 개로 분화하여 원래 하나의 글자가 부담하던 직무를 둘 또는 몇 개의 문자로 분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직무가 분담되어 새롭게 만들어진 글자를 ‘분화자’라고 하며 이러한 분화자가 비롯된 글자를 본 글자인 ‘모자’라고 한다.)

서는 더 이상 立자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사람들이 글자를 보고 뜻을 알 수 있게 되어 헤아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지금의 사람들이 전용자를 버리고 옛 사람들의 통용자를 사용하여 학식이 넓고 고상한 것으로 삼으니 이는 바로 미혹되게 하는 것이다.)

立의 갑골문 𠄎과 금문 𠄎은 땅위에 양 팔과 다리를 벌리고 서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뜬 것으로 후에 편방 人을 더하여 사람의 위치를 강조한 位로 分化하였다. 이것은 바로 分別文이 가지고 있는 字義 分化의 실제 수효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分別文의 정교한 表義 기능과 直觀的 작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王筠이 언급한 두 가지 分別文의 종류를 구체적인 字例를 들어 살펴도록 한다. 첫째, 本義가 假借義에 빼앗겨 편방을 더해 그것과 구별하는 것으로 한 글자에 대한 여러 개의 分別文의 의미와 本義는 같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嘽下云語聲也。蓋卽然否之然。火部然，燒也。借爲應詞。又加口爲別耳。脈經凡應答之詞，皆以然字代曰字，嘽下祇云然聲。²⁷⁾ (嘽은 대답하는 소리로 그렇지 아니한가의 然이다. 火 부수의 然은 태우는 것이다. 이것이 대답의 어휘로 가차되어 편방 口를 더해 따로 분리했을 따름이다. 경서에서 무릇 대답의 어휘는 然으로 曰을 대신하며 然은 嘽의 소리 부분이 된다.)

『說文』에 따르면 然의 本義는 「燒也」²⁸⁾(태우다)로 이후 ‘그렇다’라는 뜻으로 假借되어 본래의 뜻은 편방 火를 더한 燃으로 분리되었다. 또한 然否의 然은 대답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편방 口가 더해진 嘽으로도 分化되었으며 이때 嘽은 然의 分別文이 되는 것이다.²⁹⁾ 또 다른 예로는 許

26) 王筠 『說文釋例』, 卷八, 十九.

27) 王筠 『說文釋例』, 卷八, 二.

28) 許慎 『說文』十, 上.

29) 裘錫圭 『文字學概要』, 219쪽. 「然否의 {然}曾有過爲它造的分化字“嘽”, 但不通行.(그렇지 아니한가의 然은 이를 위해 만든 분화자 嘽이 있었으나 통용되지는

愼은 『說文』에 수록된 傾에 대해 「仄也」(기울어지다)라고 하였다. 이에 段玉裁는 「頃者, 頭不正也, 故从頁. 傾者, 人之仄也, 故从人. 傾者, 山阜之仄也, 故从阜」³⁰⁾ (頃은 머리가 바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頁로 이루어졌다. 傾은 사람이 기운 것이다. 따라서 人으로 이루어졌다. 傾은 언덕이 기운 것이다. 따라서 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王筠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匕部頃下云「頭不正也」. 人部傾, 阜部傾, 皆曰「仄也」. ……案云不正, 則凡不正者之統詞矣. 仄亦不正也. 知傾頃皆頃之分別文.³¹⁾ (匕 부수의 頃에 대해 ‘머리가 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人 부수의 傾과 阜 부수의 傾에 대해서도 모두 ‘기울었다’라고 하였다. ……‘바르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 기운 것을 통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仄 역시 바르지 않은 것으로 傾과 傾은 모두 頃의 분별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頃은 고대 문헌에서 ‘不正者之統詞’ 즉 바르지 않고 기울어진 것을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각종 대상의 기울어짐을 나타내는데 통용되었다. 이후 本字인 頃은 頃亩나 頃田과 같이 갈아 놓은 밭의 한 두둑과 한 고랑을 아울러 이르는 밭이나 이랑을 나타내는 단어로 假借되었다.³²⁾ 이에 따라 頃의 本義인 ‘不正’을 나타내기 위해 새롭게 편방을 더한 分別文인 傾과 傾이 등장하여 원래의 뜻을 담당하게 되었다.

둘째는 本字의 의미가 여럿이라 편방을 더해 그 중 하나의 의미만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다.

女部娶爲取之分別文. 故 『說文』曰「取婦也」. ……然上古必無此分

않았다.) 이처럼 字義를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해 탄생한 分化字와 이것의 실제 통용 여부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문자의 통용 여부는 字義의 정확도 보다는 대중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30) 段玉裁 『說文解字注』十四篇下, 六.

31) 王筠 『說文釋例』, 卷八, 六.

32) 『漢語大字典』卷七, 4356쪽. 「量詞. 土地面積單位之一, 百亩爲頃」(양사이다. 토지 면적 단위의 하나로 百亩가 一頃이다.)

別.³³⁾ (女 부수의 娶는 取의 分別문이다. 따라서 『설문』에서는 ‘아내를 취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상고 시기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구별이 있지는 않다.)

取의 갑골문 取는 적의 귀를 베어 손이 쥘 모습을 본뜬 것으로 이로부터 本義는 ‘가지다’, ‘채택하다’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편방 女가 더해져 여성을 취한다는 의미의 娶로 分化되었으며 여기에서 다시 아내를 취한다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즉 娶는 取의 分別文으로 본 글자인 取의 의미가 여럿이라 여성인 아내를 취한다는 의미의 전용자 娶로 분리된 것이다. 分別文의 전체 조건은 편방이 더해져 의미가 변화하는 것이나 王筠은 상고시기 실질적인 字義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음을 이처럼 지적하였다. 다른 예로 『說文』에서 斗는 「十升也. 象形, 有柄.」³⁴⁾(열 되의 용량이다. 상형자이며 자루가 있다.)라고 하였다. 斗의 金文은 𠂇와 같은 형상으로 술을 뜰 때 쓰던 자루가 달린 국자 모양의 용기를 본뜬 것이다. 王筠은 바로 이것을 分化字의 字例로 보았다.

知斗兼酒斗, 水斗, 羹斗三義, 加木爲杓, 第分其酒斗一義耳.³⁵⁾ (斗는 술을 뜨는 酒斗, 물을 뜨는 水斗, 국을 뜨는 羹斗의 세 가지 뜻을 겸하고 있다. 여기에 편방인 木을 더하면 杓이 되는데 이로써 술을 뜨는 酒斗의 뜻만을 따로 분리하였다.)

이처럼 王筠은 斗에는 여러 종류의 액체를 떠서 올리는 용기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편방 木을 더해 그 중 술을 뜨는 국자의 의미만을 분리하였다. 즉 斗의 分化字가 바로 杓으로써 斗에는 이미 杓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凡周禮所云, 共王共祭祀共賓客, 其事皆當致敬, 則恭養生焉. 而所供

33) 王筠 『說文釋例』, 卷八, 七.

34) 許慎 『說文』十四, 上.

35) 王筠 『說文釋例』, 卷八, 九.

非一物, 則共同之義亦生焉.³⁶⁾ (『주례』에서는 임금을 공경하는 것을 共王, 제사를 공경하는 것을 共祭祀, 손님을 공경하는 것을 共賓客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일은 모두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恭敬의 의미가 여기서 생겼다. 또한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므로 共同의 뜻 역시 여기서 생겼다.)

共의 갑골문 은 모종의 물건을 양손으로 받쳐 든 모습을 본뜬 것으로 ‘바치다’, ‘올리다’가 本義이다. 그 대상은 임금, 제사, 귀빈 등 이므로 이로 부터 ‘恭敬’의 의미로 引伸되었으며 이 때 바치는 물건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종류를 함께 올리므로 ‘共同’의 뜻 또한 가지게 되었다. 정리하면 共에 偏旁 心이 더해진 恭이 되어 恭敬의 뜻을 전담하게 되었으며, 本字인 共은 共同의 의미를 전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恭은 共의 分別文이 되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分別文의 字例는 分化字가 만들어지는 여러 경로 중에서 意符가 더해지는 경우에 속한다.³⁷⁾ 漢字는 表意문자이므로 形符에 속하는 偏旁은 이러한 기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本字에 偏旁에 더해지는 과정을 거치며 ‘因形求義’에 더욱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分別文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장점이다. 이처럼 分別文은 문자 발전 과정에서 하나의 글자가 여러 의미를 부담하는 ‘一字多義’의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漢字 본연의 表意 기능 강화에도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또한 分別文은 形聲字의 탄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獨體字인 象形에 形符인 偏旁이 더해지면서 本字는 聲符가 되는 形聲字의 탄생 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처럼 문자의 파생 과정인 孳乳 현상에 대해 합리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된 것은 分別文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2) 累增字

累增字는 偏旁을 더했으나 여전히 의미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王筠은

36) 王筠 『說文釋例』, 卷八, 三.

37) 裘錫圭 『文字學概要』, 218쪽. 「有些有比較常用的假借義或引申義的字, 通過加注意符分化出一個字來表示它們的本義.」(일부 비교적 상용되는 가차의 혹은 인신의 를 가지고 있는 문자는 의부를 더해 새로운 문자를 분화시키는 방식을 통해 그들의 본의를 표시한다.)

이러한 累增字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중 첫째는 本義가 심하게 왜곡되어 편방을 더해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累增字의 가장 중요한 작용이다. 이에 비해 나머지 두 개의 분류는 편방이 더해진 새로운 글자만이 사용되거나 혹은 파생된 글자가 아닌 도리어 本字가 통용되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累增字의 사용 여부에 관한 것을 설명한 것이다. 즉 첫째 사례는 文字의 造字 과정을 설명한 것이며 나머지 두 사례는 文字의 用字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문자 派生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첫째가 累增字의 핵심 내용이다. 먼저 本義가 심하게 왜곡되어 偏旁을 더해 드러나게 하는 字例는 아래와 같다.

夂部復下云「行故道也」, 彳部復下云「往來也」. 夫往而復來, 則所行者必故道也. 『玉篇』曰復今作復, 案從夂義已足矣. 又加彳, 微復也. 復下只云復聲.³⁸⁾ (夂부의 復은 「원래의 길로 돌아오다」이며, 彳부의 復은 「돌아오다」이다. 가면 돌아오기 마련이므로 떠난 이는 반드시 원래의 길로 돌아오게 된다. 『옥편』에서는 復을 지금은 復으로 적는다 하였다. 彳을 따르는 편방으로도 의미가 이미 충분하지만 여기에 다시 彳을 더해 좀 더 의미를 더했다. 復에서 復은 소리 부분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復에는 ‘오가다’라는 反復의 의미가 있으며 여기에 彳을 더한 復을 만들어 ‘돌아오다’라는 동작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復에 새로운 편방이 더해져 復이 되었지만 字音과 字義가 모두 같으며 復 역시 새로운 어휘를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復은 復의 累增字에 해당한다. 또 다른 예로는

曰部沓, 「語多沓沓也」. 言部譖, 「謔語也」. 『玉篇』解之曰「語相及」, 又曰「妄語也」. 是沓語一字也, 譖下祇云沓聲.³⁹⁾ (曰부의 沓은 ‘말이 많다’이며 言부의 譖은 ‘망령되게 말하다’이다. 『玉篇』에서는 譖을 ‘말이 계속 이어지다’ 또는 ‘망령되게 말하다’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沓과 譖


38) 王筠 『說文釋例』, 卷八, 十三.

39) 王筠 『說文釋例』, 卷八, 十二.

은 같은 글자로 諳은 沓을 소리글자로 삼고 있다.)

위에서 王筠이 인용한 沓의 「語多沓沓也」⁴⁰⁾(말이 많다)와 諳의 「謎諳也」⁴¹⁾(망령되게 말하다)는 모두 許慎의 풀이이다. 『玉篇』에서는 諳에 대해서 「語相及」(말이 계속 이어지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풀이를 종합하면 결국 沓과 諳은 ‘말이 많고 계속 이어지다’라는 공통의 의미가 생기며 발음 또한 동일하므로 이 둘은 累增字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처럼 字形이 繁化 되었지만 어휘의 본질적인 의미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累增字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이상의 예가 王筠이 제시한 첫 번째 累增字의 유형에 속한다면 이하의 내용은 성격이 다소 다르다.

『玉篇』守, 五指也, 亦作掬, 取也摩也. 『廣韻六術』守, 持取, 今守禾是. 手部掬, 取易也. 『廣韻十三末』掬, 手掬也, 取也摩也, 或作守. 然則守掬一字也. 掬下祇云守聲.⁴²⁾ (『옥편』에서 守은 다섯 손가락이라고 하였다. 掬로도 적으며 ‘취하다’, ‘어루만지다’의 뜻이다. 『광운육술』에서 守은 ‘가지다’라고 하였으며 지금 ‘벼를 취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이다. 手部的 掬은 ‘취하다’라고 하였다. 『광운십삼말』에서 掬은 ‘손으로 집어 따는 것’이며 ‘취하다’, ‘어루만지다’의 뜻으로 守로도 적는다 하였다. 따라서 守과 掬은 동일한 글자이며 掬은 守을 소리글자로 삼고 있다.)

『說文』에서 守은 「五指持也」⁴³⁾(다섯 손가락으로 물건을 잡는 것)이라고 하였다. 고문자인 金文  역시 한 손으로 물건을 들고 다른 손은 이를 잡는 모습을 본뜬 것이다.⁴⁴⁾ 한편 王筠의 분석을 통해서 守과 掬은 모두 ‘취하

40) 許慎 『說文』五, 上. 한편 許慎은 沓의 구조를 「从水从日」이라고 하였지만 갑골문에 따르면 从日은 본래 从口의 자형이 訛變된 것으로 「从水从口」의 구조가 맞는 것이다. 董蓮池 『說文解字考正』, 186쪽.

41) 許慎 『說文』三, 上.

42) 王筠 『說文釋例』, 卷八, 十一.

43) 許慎 『說文』四, 下.

44) 董蓮池 『說文解字考正』, 157쪽.

다’, ‘어루만지다’의 공통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발음 또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후 편방이 더해진 새로운 글자만이 ‘젓을 짜다’의 표현인 ‘搯乳’와 같이 사용되고 本字인 古文 𠄎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⁴⁵⁾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𦉳與夕部夢同, 祇云夢聲.」⁴⁶⁾ (𦉳과 夕部の 夢은 같은 글자로 𦉳의 소리글자는 夢이다.) 『說文』에서는 夢⁴⁷⁾과 𦉳⁴⁸⁾ 모두를 「不明也」(밝지 않다)라고 풀이하였다. 夢에 대해 段玉裁는 注에서 「以其字从夕, 故釋爲不明也.」(이 글자의 자형은 저녁 夕으로 이루어져 ‘밝지 않다’라고 풀이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본뜻은 저녁이 되어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기서 引伸되어 ‘어둡다’, ‘꿈’ 등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된다. 이처럼 夢과 𦉳은 완전히 동일한 字義와 字音을 가지고 있는 累增字에 속한다. 하지만 이후 주로 사용되는 것은 夢으로 이것은 결국 편방이 더해졌지만 여전히 사용되지 않아 통용되는 것은 도리어 本字인 古文의 字例에 해당된다.

정리하면 한자는 表意文字이므로 古文字 단계에서는 字形을 보고 字義를 판단할 수 있는 ‘因形求義’가 일정 부분 가능했으나 字形이 변함에 따라 이러한 기능이 점차 약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앞서 王筠이 지적한 累增字의 첫 번째 기능인 本義가 심하게 왜곡되어서 편방을 더해 그 원래의 字義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累增字 탄생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分別文과 累增字는 王筠이 『說文』의 重文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異部重文 중 별도로 분리한 개념으로 本字에 새로운 편방이 더해지는 과정에서 本字와 새로운 글자 사이에 의미 차이의 여부에 따라 각기 分別文과 累增字의 규율을 정리한 것이다. 王筠이 제시한 이와 같은 이론의 가장 중요하게는 바로 『說文』중 서로 다른 部首에 속하는 異部重文을 문자가 만들어지는 造字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문자의 派生 현상을 정리했다는 점이다.

45) 『說文』에 수록된 搯에 대해 徐灝注箋은 「𠄎搯本一字, 相承增偏旁」(𠄎과 搯은 본래 같은 글자로 서로 이어 편방이 더해진 것이다.)이라고 하였다. 『漢語大字典』卷三, 1885쪽.

46) 王筠 『說文釋例』, 卷八, 十六.

47) 許慎 『說文』七, 上.

48) 許慎 『說文』十, 下.

2. 分別文 및 累增字와의 관계

古今字는 하나의 낱말에 해당하는 여러 자형이 발생하는 일종의 ‘一詞多形’ 현상의 일환으로 통용 시기에 따라 古字와 今字로 나눌 수 있다.⁴⁹⁾ 王筠은 分別文 및 累增字와는 달리 古今字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적인 저술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일부 개별 글자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古今字에 관한 내용을 일부 발견할 수 있다.

辵部迹之或體蹟, 『玉篇』在足部, 引『詩』「念彼不蹟」, 而用『毛傳』之說曰「不蹟, 不循道也」, 與迹訓步處, 義既不同. 其蹟字之下, 卽出跡字, 迹跡古今字也.⁵⁰⁾ (辵部 迹의 흑체는 蹟으로 『옥편』足部에서는 『시경』의 ‘저 도리를 따르지 않음(不蹟)을 생각하니’의 구절의 『모전』해설을 이용하여 ‘따르지 않는 것(不蹟)은 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迹의 뜻인 ‘발자국’과는 뜻이 같지 않다. 따라서 蹟 아래에 跡이 다시 나왔으며 이때 迹과 跡은 고금자이다.)

『說文』에서 迹은 辵部에 속하며 「步處也」⁵¹⁾(발자국)라고 풀이하였으며 或體⁵²⁾인 蹟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蹟은 『玉篇』에서 足部에 수록되어 있으며 해석 또한 ‘따르다’라고 하여 許慎과는 차이가 있다. 결국 『玉篇』에서는 蹟과 함께 跡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 때 迹과 跡은 一詞多形の 古今

49) 裘錫圭 『文字學概要』, 256쪽, 「古今字也是跟一詞多形現象有關的一個述語. 一個詞的不同書寫形式, 通行時間往往有前後. 在前者就是在後者的古字, 在後者就是在前者的今字.」(고금자 역시 하나의 어휘에 여러 개의 자형이 발생하는 현상과 관련 있는 술어이다. 하나의 낱말의 서로 다른 서사 형식으로 이것의 통행 시기는 때로 앞과 뒤가 있다. 앞의 것은 뒤의 것의 고자가 되며, 뒤의 것은 앞의 것의 금자가 된다.)

50) 王筠 『說文釋例』, 卷六, 七.

51) 許慎 『說文』二, 下.

52) 或體는 許慎이 고대 典籍 등의 자료 가운데 자형이 같지 않은 것을 선별한 것으로 小篆 또는 古文, 籀文 등과는 차이가 있다. 古文과 籀文 그리고 篆文 등은 서로 다른 시기의 字形상의 차이에 속하지만 或體와 俗體 등은 동일한 시기의 서로 다른 字形을 지칭하는 것으로 넓은 범주의 異體字에 속한다. 吳濟仲 「『說文解字』重文的內容 및 字例 研究 - 或體와 俗體의 字例 분석을 위주로」, 455쪽.

字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王筠이 생각하는 古今字는 여러 문헌에 존재하는 ‘同詞異字’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漢代 훈고학자들이 주목했던 古今字의 관념과 대단히 유사하다. 따라서 王筠이 생각하는 分別文과 累增字 그리고 古今字를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古今字는 보편적으로 시대에 따른 一對一 대응의 同詞異字 현상인 반면 分別文과 累增字는 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派生 현상으로 하나의 本字에서 여러 개의 문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頃이 한 개 이상의 分別文인 傾과 隲으로 파생되는 것은 古今字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또한 分別文과 累增字가 주로 문자의 派生 현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訓詁學 영역에 근접한 古今字는 문헌에서 문자의 활용과 관련되어 주로 문자와 어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夬部睪與部首眊，蓋古今文。眊，左右視也，苟非有所驚患，何爲左右視哉，是足眊舉目驚睪然之義矣。⁵³⁾ (夬 부수의 睪과 부수자인 眊는 고금문의 관계이다. 眊는 좌우를 살피는 것으로 만일 놀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서 좌우를 살피겠는가? 따라서 이것은 두려워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뜻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說文』에 따르면 眊는 「左右視也」⁵⁴⁾(좌우를 살피다)라고 하였으며 睪는 「舉目驚睪然也」⁵⁵⁾(두려워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고 풀이하였다. 즉 許慎은 眊에 대해 ‘좌우를 바라보다’는 의미로만 파악했지만 王筠은 여기에 좌우를 살피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眊와 두려움에 주위를 살피는 睪와는 ‘同詞異字’의 古今字 관계임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古今字는 문헌에서 활용되어 보다 쉽게 의미를 파악하게 위함으로 문자의 派生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에 비해 分別文은 문자의 구조가 변화되어 專用字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연관이 있다. 즉 문자의 유래와 탄생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古今字와 같이 문자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다.⁵⁶⁾ 정리하면

53) 王筠 『說文釋例』, 卷七, 二十一.

54) 許慎 『說文』四, 上.

55) 許慎 『說文』十, 下.

分別文은 ‘一字多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分別文은 本字의 부분적인 字義만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古今字는 字義는 같지만 단지 字形만이 다른 것으로 古字와 今字의 字義는 기본적으로 서로 일치하게 되며 따라서 문헌 중에서 서로 치환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王筠은 古今字 그리고 分別文과 累增字에 대해 분명한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먼저 古今字는 문헌 중 어휘의 의미와 문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대가 다른 古今 두 문자의 의미를 서로 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반해 分別文과 累增字는 本字와 派生字 사이의 造字相承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문자의 파생 과정인 孳乳 현상을 밝히고자 함이다. 즉 가장 선명한 차이점은 古今字는 訓詁學 관점에서 문자의 활용을 논한 것이며 分別文과 累增字는 文字學 관점에서 문자의 造字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古今字와 分別文 및 累增字를 동일한 개념으로 오해하여 古今字를 造字相承의 관계로 본 것은 이미 清代에서 비롯되었다. 『說文』 「祐, 助也. 从示右聲.」⁵⁷⁾(祐는 보우하다이다. 뜻 부분인 示와 소리 부분인 右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段玉裁는 注에서 「古祇作右」(고대에는 단지 右로 적는다)라고 하였다. 右의 本義는 오른쪽으로써 갑골문 𠂇는 오른손을 본뜬 것이다. 이후 假借되어 副詞인 又가 되었으며 다시 引伸되어 保佑하다는 뜻의 祐가 되었다. 이후 𠂇는 副詞인 又를 전담하게 되었고 여기에 구별을 위해 편방 口를 더한 金文 𠂇와 같이 오른쪽을 나타내는 右를 전담하게 되었다.⁵⁸⁾ 이에 대해 청대의 徐灝는 다음과 같은 箋을 추가하였다.

右祐古今字, 凡古今字有二例. 一爲造字相承, 增偏旁. 一爲載籍古今

56) 裘錫圭 『文字學概要』, 257쪽. 「由于講古今字的目的主要在於注釋古書字義, 而不在于說明文字歷史, 所謂“古今”并不一定反映一個詞的不同書寫形式開始使用的時間的早晚」(고금자를 논하는 주요한 목적은 고서의 자의를 주석하는 것으로 문자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위 고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낱말의 서로 다른 서사 형식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간의 빠름과 늦음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57) 許慎 『說文』一, 上.

58) 董蓮池 『說文解字考正』, 49쪽.

本也.⁵⁹⁾ (右와 祐는 고금자이다. 무릇 고금자에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문자가 만들어지는 계승 관계로 편방이 증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금본 문헌에 수록되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造字相承’과 자형이 변화하는 ‘增偏旁’의 관점은 王筠이 주장한 分別文과 累增字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소위 古今本은 段玉裁의 古今字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문헌상에 등장하는 문자의 의미를 풀어내는 일종의 훈고학적 의미이다. 이처럼 徐灝는 문자의 편방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일종의 문자 파생 현상과 서로 다른 고적에서 발견되는 古今本 모두를 古今字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편방이 증가하여 문자가 파생되는 것은 문자가 만들어지는 일종의 造字 현상에 속하며 서로 다른 고적에 수록된 동일한 의미의 문자는 活用の 문제이다. 한편 古今字 그리고 分別文과 累增字의 이와 같은 개념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는 경우에 따라 일정한 관계 또한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王筠이 本字 혹은 正字라고 부른 문자들은 일반적으로 탄생 시기가 빠른 古字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古字와 이후에 등장하는 分別文 혹은 累增字와는 古今字의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결국 分別文과 今字는 모두 本字와 古字의 기초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分別文과 古今字의 일정한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이다. 결국 표면적인 결과로는 이들 사이의 선명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分別文과 累增字를 古今字와 동일시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IV. 結 論

王筠의 古今字 관념은 동일한 어휘이지만 서로 다른 시기 또는 다른 문헌에서 서로 같지 않은 문자로 사용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漢代 훈고학자들이 주장한 ‘同詞異字’의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것은 바로 한자와 어휘와의 상관성의 관점에서 논한 것으로 문헌상의 소통 문제 해결에 중점

59) 徐灝 『說文解字注箋』卷一上. 『說文解字詁林』卷二, 78쪽.

을 두고 있다. 반면 分別文과 累增字는 기존 한자에 편방이 더해지며 발생하는 造字의 문제로 한자의 派生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王筠은 分別文과 累增字의 개념을 통해서 漢字의 어휘 표현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현상이 또한 문자의 派生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王筠이 제시한 分別文과 累增字는 결국 한자가 발전하는 과정 중에서 어휘가 표현하는 다양한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편방이 증가하는 문자의 造字 현상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王筠이 생각하는 古今字는 문자와 어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으로 그 주요한 목적은 바로 문자와 이것의 실제 어휘 활용에서 오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分別文과 累增字 그리고 古今字의 개념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이로 인해 탄생한 문자의 결과에는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며 이들을 서로 동일한 개념으로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모든 古今字가 바로 이와 같은 造字의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들이 바로 동일한 개념이라는 명제가 언제나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分別文과 累增字 그리고 古今字는 동일한 개념의 측면에서 다루어서는 안 되지만 경우에 따라 分別文과 累增字의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古今字가 탄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古今字와 分別文 그리고 累增字 모두는 언어와 어휘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탄생한 현상으로 이후 字義와 字形의 派生에 분명한 기여를 하였다.

❖ 참고 문헌

- 唐蘭, 『古文文字學導論』, 山東: 齊魯書社, 1981.
- 姚孝遂, 『許慎與《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83.
- 高明, 『中國古文字學通論』, 北京: 文物出版社, 1983.
- 容庚, 『金文編』, 北京: 中華書局, 1985.
- 馬叙倫, 『說文解字研究法』, 香港: 香港太平書局, 1985.
- 王筠, 『說文釋例』, 北京: 中華書局, 1988.
- 唐蘭, 『中國文字學』, 香港: 香港太平書局, 1988.
-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漢語大字典』, 湖北: 湖北辭書出版社, 1989.
- 許慎著·段玉裁注, 『說文解字注』, 臺北: 書銘出版公司, 1992.
- 徐中舒, 『甲骨文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93.
- 楊家駱, 『說文解字詁林』, 臺北: 鼎文書局, 1994.
- 李恩江·賈玉民, 『說文解字』, 鄭州: 中原農民出版社, 2000.
- 董蓮池, 『說文解字考正』, 北京: 作家出版社, 2005.
- 최영애, 『중국어관 무엇인가』, 통나무, 2008.
- 裘錫圭, 『文字學概要』, 北京: 商務印書館, 2013.
- 魯一帆, 「王筠의異部重文同部重文研究」, 『信陽師範學院學報』 제32권, 제6기, 2012.
- 李運富·蔣志遠, 「從分別文累增字與古今字的關係看後人對這些術語的誤解」,
『蘇州大學學報』 제3집, 2013.
- 吳濟仲, 「『說文解字』重文의 內容 및 字例 研究 - 或體와 俗體의 字例 분석을 위주로」,
『中國文化研究』 제27집, 2015.

❖ ABSTRACT

A Study of *Wangyun's* Theory of *Gujinzi*
- Focusing on *Fenbiewen* and *Leizengzi*

Oh, Jae-Joong

Wangyun is a prominent scholar in the *Qing* dynasty. *Shuowenshili* is his masterpiece study of *Shuowenjiezi*. *Shuowenshili* discusses the difference between *Fenbiewen* and *Leizengzi*. It emphasizes that meanings to a word tends to help express more exactly. *Wangyun's* discussion about *Gujinzi* refers to the phenomenon that in order to recode a word different characters used in different periods. *Wangyun's* use of *Gujinzi* is based on the purpose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s. *Fenbiewen* and *Leizengzi* are specialized term of characters evolution. *Wangyun's* theory of *Fenbiewen*, *Leizengzi* and *Gujinzi* is the most important linguistics found. He was generous contributions to the linguistics of China. In particular, understanding the meaning and development of Chinese character.

Key Words

王筠, 說文釋例, 古今字, 分別文, 累增字

Wangyun, *Shuowenshili*, *Gujinzi*, *Fenbiewen*, *Leizengzi*

논문접수일: 2015년 05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0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6월 17일